

<2011년 2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>

* 2월 2일 수요일 잠언과 같이 보세요.

1. 사람이 성삼위에 대하여 몰라야 될 것은 모르고 믿는 것이 편하다.
2. 인간의 각자 수준만큼 성삼위를 알고 섬김이 합당하다.
3.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심과 엄위함과 높고 높음을 인간이 다 알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.